

석화업계, 범용 한계에 고부가 이동… 수익성은 여전히 과제

中발 공급 과잉에 범용탈피 불가피
스페셜티·첨단소재 중심 재편 가속
고부가 진입 장벽 낮아져 경쟁 심화
차별화 기술·수요 없인 성과 제한
전환은 필수지만 수익성은 미지수

석유화학 업계가 구조 개편과 함께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며 포트폴리오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를 둘러싼 경영 환경은 내년에도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글로벌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가운데 고부가 분야의 진입 장벽이 빠르게 낮아지고 있어 차별화된 기술력과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익성 개선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은 범용 제품 중심의 기존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스페셜티 소재와 신성장 사업 비중을 확대하는 등 체질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는 장기화된 업황 부진과 중국발 공급 과잉이 구조적으로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



LG화학 여수 NCC 전경.

/LG화학

모델만으로는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LG화학은 기존 3대 성장 동력인 친환경 경소재·전지소재·혁신신약에 석유화학 고부가 전환을 추가해 4대 성장 동력 체제로 재편했다. 친환경 소재 분야에서는 수소 처리 식물성 오일(HVO), 폐플라스틱 재활용 등 차세대 기술 선점에 나서는 동시에 나프타 구매 구조 혁신과 유틸리티 절감 등을 통해 원가 경쟁력 강

화에 주력하고 있다. 석유화학 부문에서는 자동차·가전·의료용 고부가 수지(ABS), 전기차용 고기능성 합성고무(SSBR), 반도체용 IPA, 탄소나노튜브(CNT) 등 고부가 파이프라인을 확대하며 신소재·신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첨단소재 부문 역시 전지·전자 소재로 사업 영역을 넓힐 계획이다.

전지 소재는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함께 2030년까지 외판 비중을 50% 이

상으로 끌어올려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한 자동차 전동화·전장화수요에 대응한 고기능 소재, 반도체 소재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

롯데케미칼도 고부가 기술 중심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2030년까지 고부가 스페셜티 비중을 매출의 60%까지 확대하는 한편 기초소재 범용 제품은 운영 효율을 극대화해 30% 이하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남 울진산업단지에 단일 기준 국내 최대 규모의 컴파운드 생산 설비를 갖춘 ‘롯데 엔지니어링플라스틱’ 공장을 설립했으며, 지난 10월부터 일부 라인의 상업 생산을 시작했다. 연간 50만t 규모로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이 공장은 모빌리티·IT 산업 맞춤형 고기능성 소재 공급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DL케미칼은 수익성이 낮고 구조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다운스트림 제품군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거나 단종하고, 일부 설비는 스크랩 처리 또는 고부가제품 중심으로 재배치할 계획이다. 축소되는 생산 능력과 원료 가격 부담을 상쇄

하기 위해 고부가 제품 중심의 연구개발(R&D)에 역량을 집중하며 사업 구조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의 고부가 전환이 명확한 수요가 선행된 전략이라기보다 업황 부진의 장기화로 인해 선택지가 제한된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수익성 악화와 구조적 공급 과잉 압박 속에서 기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지자 충분한 시장 검증 이전에 고부가 영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시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범용 석유화학 중심 사업으로는 출구를 찾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수요를 찾아 고부가 분야로 이동하는 선택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중국·중동·인도 등에서 대규모 증설이 동시에 진행되는 환경에서 단순한 규모 경쟁으로 맞서기에는 한계가 뚜렷해 차별화된 공정과 기술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고부가 전략 역시 제한적인 수익성 개선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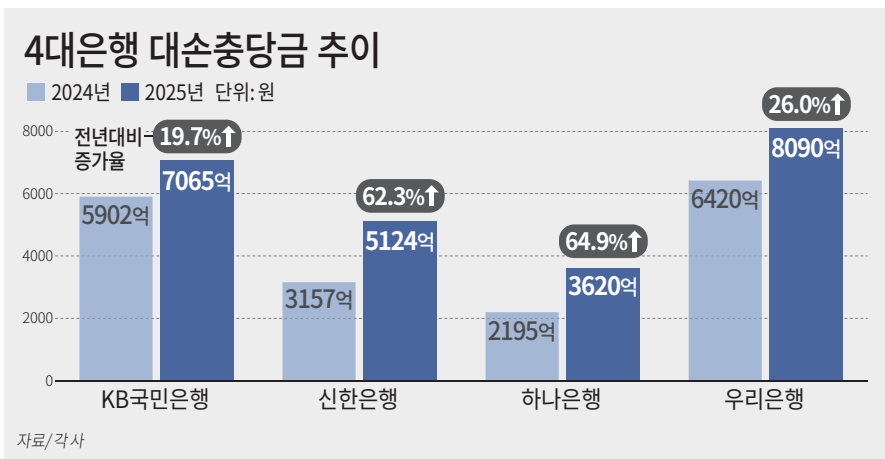
환율·연체율 부담 커지자… 4대은행, 총당금 전입액 ‘급증’

3분기 누적 2조4000억 전년비 35% ↑
하나·신한은행 총당금 증가폭 두드러져
기업 연체율 0.69% 중소기업 0.84%
환율 상승 변수에 중기 부실 우려 확대

주요 은행들이 부실에 대비해 은행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대손충당금을 확대하고 있다. 가계대출 대신 기업대출 영업을 강화하면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중소기업에 중심으로 대손충당금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은행의 올해 3분기 누적 총당금 전입액은 2조3899억원으로 1년전(1조7674억원)과 비교해 3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업대출 대손충당금 증가
은행별로는 하나은행의 증가폭이



컸다. 하나은행의 총당금 전입액은 3620억원으로 전년 동기(2195억원) 대비 64.9% 늘었다. 신한은행도 같은 기간 3157억원에서 5124억원으로 62.3% 증가하며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 역시 총당금 적립 규모를 확대했다. 우리은행은 8090

억원으로 전년 동기(6420억원) 대비 26.0% 늘었고, 국민은행은 7065억원으로 5902억원보다 19.7% 상승했다.

대손충당금 규모가 확대된 이유는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들이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영업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기업대출은 가계대

출에 비해 신용위험 관리가 까다로운 만큼, 선제적으로 총당금을 적립하려는 움직임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도 상승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0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0.58%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말 대비 0.07%포인트(p), 전년 동월 대비 0.10%p 상승한 수치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69%로 한달 전과 비교해 0.08%p 상승했다.

이 중 대기업대출은 0.14%로 같은 기간 0.02%p 오른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0.84%로 0.09%p 상승했다. 중소기업대출 중 중소기업인은 같은 기간 0.12%p, 개인사업자대출은 0.07%p 올랐다.

◆ 환율 변동성, 총당금 압박
업계 안팎에선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

면서 중소기업에 중심으로 대손충당금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평균 달러당 1457.77원을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9월 1391.83원 ▲10월 1423.36원 ▲11월 1457.77원으로 상승했다. 정부의 개입으로 이날 환율은 1440원을 밑돌고 있지만, 12월 초만해도 평균이 1470원대를 넘었다.

환율 상승은 은행권의 건전성 관리 전반에 간접적인 부담을 주는 변수로 작용한다. 외화자산과 외화대출을 원화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위험가중자산(RWA)이 늘어나 자본비율에 압박을 가할 수 있어서다. 또 동시에 외화부채를 보유한 기업과 수입원가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상환 및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나유리 기자 yul115@

中企 자금사정 악화 지속… 내년도 ‘먹구름’

중기중앙회, ‘금융이용·애로 실태조사’
중기 40% “올해 자금사정 악화”
내년 차입여건도 악화 전망 우세

올해 자금사정이 악화일로였던 중소기업 업계의 내년 상황도 암울하다. 고금리로 인한 은행 문턱은 여전히 높아 이자 부담 완화가 기업들에게는 가장 절실한 모습이다. 특히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가계 대출에 집중된 금융자원을 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생산 영역으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2025년 금융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29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지나해 대비 올해 자금사정’을 묻는 질문에 ‘악화됐다’(매우 악화+다소 악화)는 답변은 40%, ‘호전됐다’(다소 호전+매우 호전)는 13.2%로 각각 나타났다. ‘악화’가 ‘호전’보다 3배 이상 많은 모습이다. 작년과 ‘비슷’은 46.8%였다. 자금사정이 ‘나빠진 원인’(복수응답)으로는 ‘판매부진’(59%)과 ‘원·부자재 가격상승’(51.5%)을 주로 꼽은 가운데 ‘인건비 상승’(33%), ‘납품대금 가격 동결 또는 인하’(14.5%)도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다.

문제는 내년이다. 2026년 ‘전반적 차입 여건’ 전망에 대해 ‘악화’(37%)가 ‘호전’(6.8%)보다 5.5배 가량 많았다. 상황이 좋지 않았던 ‘올해와 비슷’이라는 답

변도 56.2%에 달했다. 중소기업들이 내년 자금 사정에 대해 암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가장 필요한 금융지원(복수응답)으로는 ▲금리부담 완화(38.8%) ▲정책자금 대출 확대(27.4%) ▲담보대출 의존 관행 개선(14%) ▲경기불황시 중소기업 대출 축소 관행 개선(11.8%) 등을 꼽았다.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시 애로사항(〃)에서도 가장 많은 73.6%가 ‘높은 대출금리’를 지목했다.

중기중앙회이민경정책총괄실장은 “작년 10월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됐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2025년 가장 큰 금융애로로 높은 대출금리를 꼽았다”며 “중소기업에 가장 필요한 금융지원 또한 금리부담 완화 정책 확대로 나타나 여전히 금융비용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승호 기자

식품업계 “원가 부담에 수익성 방어 집중”

>> 1면 ‘고환율 쇼크…’서 계속

오뚜기의 경우 올해 3분기 기준 대두유·팜유 등 주요 유지 수입 비용이 톤당 1125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했다. 해외매출 비중이 11.9%에 불과한 내수 중심 구조인 만큼 환율 부담이 고스란히 실적에 반영되고 있다. 롯데웰푸드도 초콜릿 원료인 코코아 가격이 2년 만에 3배 이상 급등하며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그룹 차원의 ‘빠빠로’ 글로벌 마케팅 강화 역시 내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반면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고환율 국면을 기회로 삼고 있다. 농심은 글로벌 IP 협업과 K팝 스타를 앞세운 마케

팅으로 해외 인지도를 끌어올리며 해외매출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외매출 비중이 80%를 넘는 삼양식품은 고환율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양식품의 올해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환율과 원자재 가격이 동시에 오르면서 원가 부담이 상당히 누적된 상태”라며 “이미 한 차례 가격 조정을 단행한 만큼 당분간은 비용 절감과 수익성 방어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추가적인 가격 인상 여부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